

2009 아름다운 동행, 그 이후 ④ '한나의 하루' 제작한 시각장애인 영화감독 노동주씨

장편영화 만들어 희망의 증거 보여주겠다

광주 인권영상 공모전서 대상 수상에 유명세 "좋은 제작자 만나 칸 영화제 무대 밟는게 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상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과 지인들의 현실적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광주시 북구 어린이대공원 인근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감독' 노동주(27)씨는 미래를 향한 '단꿈'에 부풀어 있었다. 이달 초 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가 주최한 '2009 인권영상공모전'에서 대상인 '인권상'을 수상(본보 12월 3일자 7면)한 이후 자신의 '영상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노 감독은 1급 시각장애인의 몸으로 극영 화인 '한나의 하루'를 만들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나의 하루'는 눈 안이외의 고달픈 하루를 다룬 작품으로, 자신처럼 앞을 못보는 '아픔'을 영상에 담아 화제가 됐다. 노 감독은 2년 전 발병한 다발성경화증으로 인해 시신경이 상실돼 시력을 잃었다. 노 감독은 "처음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며 "하지만 이들 지인들이 나중에는 영화를 만드는 데 가장 든든한 후원자들이 됐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인 노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그는 사물의 형태 만을 간신히 인식할 수 있는 다발성경화증으로 인해 제작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한나의 하루'에서도 시나리오 작업부터 촬영과 편집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인들의 '눈'과 '손'을 빌렸다. 특히 이옥호(38·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씨와 고은희(여·35·프리랜서), 이선우(29·프리랜서)씨 등 3명은 노 감독과 함께 '한나의 하루'를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노 감독은 "육호형은 제작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줬고, 은희 누나와 선우형도 각각 편집과 카메라 부분을 도맡았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도 싫은 내색없이 일을 해준 것이 너무도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노 감독을 향한 부모님의 각별한 애정도 '한나의 하루'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됐다. 부친 노병천(59)씨는 지난 8월25일 폐암으로 숨을 거두기 전까지도 노 감독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며 자신감을 북돋워줬다.

또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55)는 노 감독이 시련에 부딪칠 때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 정작 병마와 싸우면서도 아들이 노 감독에게 '희망

의 끈'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노 감독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자주 극장을 가곤 했다"며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은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심어주시는 유산처럼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최근의 '유명세'와는 달리 걱정거리도 많다. 자신이 꿈꾸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선 제작을 도와줄 후원의 손길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의 꿈은 좋은 제작자를 만나서 '사랑'을 주제로 한 장편영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칸 영화제에도 진출해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시각장애인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그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시각장애인 감독 노동주씨가 지난 23일 광주시 북구 어린이대공원을 걸으며 '한나의 하루' 제작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나원침 (7989) 김중두



광주 12월 화재건수

작년보다 33% 감소

매년 이맘때면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던 소방차들을 울리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화재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과 21일, 23일에는 아예 화재 신고 조차 없었다.

25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는 모두 76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113건보다 32.7%(37건)나 급감했다. 지난 2007년과 지난해 추운 날씨 탓에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급증세를 보였던 화재 건수가 올해에만 유독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발생한 76건의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도 3억여 원(소방서 추산)에 불과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 70대 치매노인 실종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노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5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순천시 송광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같은 마을 지도(76·여)씨가 24일 밤 9시께 마을 경로당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는다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년 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지씨는 최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이 돌봐왔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지씨가 평소 인근 산을 자주 돌아다녔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마을 인근을 수색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허태민기자 hagija@

커울족 애정 행각에 독신남 행패

남성이 성탄절을 맞아 외로움을 달래려 홀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커울족 "대놓고 애정 행각을 벌인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25일 광주 시내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최모(4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새벽 0시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김모(여·47)씨가 운영하는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연인이 흥에 겨워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에 격분, 맥주병과 안주 등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교합을 질러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았다는 것.

○술집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최씨는 "(나는) 혼자서 외롭게 술을 마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연인과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 같아 순간 화가 치밀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고흥군민 의료비 전국 2위

1인당 연간 138만원... 고령환자 많아

지난 해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는 8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고흥군의 1인당 진료비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전남지역의 입원·내원일 수는 광역 시·도 중 2위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8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진료비는 80만원(의료보장 적용)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전북 부안군이 1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흥군 138만원, 경남 남해군 133만원 순으로 고령화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의

1인당 진료비가 높았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대구 달성군 53만원, 대구 서구 58만원, 수원시 권선구 64만원 순으로 나타나 시·군·구간 차이는 최고 2.6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민의 지난 해 연간 입내원일 수는 1인당 평균 17.98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북(23.07일), 전남(22.30일), 제주(20.84일)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의료기관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98.8%), 전북(96.8%), 충남(96.4%) 순이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보훈청 위탁 병원 6곳 추가 지정

광주지방보훈청은 최근 한일병원을 비롯한 6개 병원을 국가 유공자 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는 추가로 지정된 병원은 광주시 남구 한일병원, 나주시 영산포제일병원, 해남군 해남유리병원, 여수시 한려엑스포병

원, 고흥군 녹동현대병원, 영암군 월출방안안과의원 등이다.

국가보훈대상자는 내년부터 이들 6개 병원에서도 국가유공자증 및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국비진료 및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은수리에 사랑

성탄절인 25일 광주·전남 천주교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일제히 진행됐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창무 대주교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주교좌 북동성당에서 열린 예수성탄대축일 미사에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두운 세상만 탓하지 말고 어두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양심을 지닐 수 있음에 감사하자"고 제안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무등산 옛길' 전국적 웰빙명소로

지난 5월 개방 후 탐방객 10만 명 넘어서

지난 5월과 10월 각각 개방된 광주 무등산 옛길 1구간과 2구간 탐방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2구간을 다녀간 탐방객 중 절반 가량은 서울과 충청, 경남·북 등 외지인들로 집계돼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시와 무등산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5월 개방한 산수동에서 원효사까지 7.75km 무등산 옛길 1구간과 10월 개방한 원효사에서 서서대까지 4.12km 무등산 옛길 2구간의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구간은 7만5천여 명, 2구간은 3만여 명 등 모두 10만5천여 명이 다녀갔다. 또 무등

산관리사무소가 구간 별 입구에서 임의 계측한 결과 2구간의 경우 단체 탐방객 중 절반 가량이 1만 여명이 광주·전남 지역민이 아닌 외지인들로 나타났다.

무등산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탐방객 중 무등산 옛길에 감명을 받은 네티즌들이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곳곳에서 탐방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최근 눈이 내려 안전문제

등으로 단체 탐방객의 경우 2구간을 일시통제하고 있는 데, 이처럼 문의가 계속되면서 조만간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무등산 옛길에 대한 높은 관심은 경사가 완만한 도심에서부터 남녀노소 모두 편안하게 평지를 걷듯 해발 1천m까지 오를 수 있고, 숲이 조성돼 햇볕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적인 포장길이 없는 흙로만 된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옛길 이미지에 맞는 주변 고사목을 이용, 길을 조성해 탐방객들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 전국 각지에서 탐방객이 줄을 잇는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대 3.92대 1 2010 정시모집 경쟁률

순천대는 25일 "2010학년도 정시모집 마감 결과 1천319명 모집에 5천174명이 지원, 평균 3.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3.45대 1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다. 최고 경쟁률은 사범대 국어교육과로 9.5대 1이었으며, 조경학과(9.3대 1), 컴퓨터교육과(7.9대 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초당대는 446명의 정원에 2천54명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고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간호학과 13.8대 1, 치위생학과 6.5대 1, 조리과학부 5.5대 1 등이다. /동부취재본부=허태민기자 hagija@

화마 덮친 향일암 해맞이 행사 열기로

주민·공무원 등 합심 화재 잔재처리 완료

지난 20일 대웅전 등 주요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여수시 '향일암'의 화재 잔재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새해 해맞이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여수시와 향일암 등에 따르면 23일부터 시작된 화재 잔재물 처리작업이 주민과 군·경 합동 작업에 힘입어 이틀 만인 24일 완료됐다.

이번 잔재물 처리작업에는 돌산 임포마을 주민과 여수경찰, 여수해

안경찰, 육군7391부대, 돌산읍공무원 등 250여명이 투입됐다. 여수시는 마태 3천600매와 덤프차 2대를 지원했다. 당초 향일암은 화재 이후 해맞이 행사를 놓고 일부에서 취소 논란이 제기됐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등에서 규모를 줄여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연과 오락행사 등은 축소되거나 폐지됐고 기원·열린 등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오는 31일에는 금오산 정상 해

넘이 감상과 시루떡 자르기 및 떡 나눔행사, 대형 촛불 조형물 점등 행사, 소원시 쓰기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 새해 첫 날에는 오전 6시부터 일출 제례와 풍선날리기, 2012인본 희망떡국 나누기를 통한 2012여수박람회 성공기원 등 새해 소원과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개최된다. 한편 지난 20일 새벽 0시24분께 향일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대웅전과 중무실, 종각 등 사찰 건물 3채가 소실됐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9분 해질 17시 27분 달돋이 12시 46분 달질 01시 32분

다시 찾아온 추위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눈이 내리겠으며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권에 들겠다.

광주	최고/기온	-2/4℃
목포	최고/기온	-1/3℃
여수	맑음	0/6℃
완도	흐림	0/5℃
구례	흐린구름	-2/4℃
여남	최고/기온	-2/4℃
장흥	흐린구름	-2/4℃
고흥	맑음	-1/6℃
순천	맑음	-1/5℃
영광	최고/기온	-2/3℃
진도	최고/기온	-1/4℃
전주	최고/기온	-3/2℃
남원	최고/기온	-3/3℃
옥산도	최고/기온	1/4℃

계곡명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3.0m	목포	08:42	01:34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20:54	14:09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여수	04:04	09:54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16:02	22:37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1/1(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3/3	-3/2	-4/4	-1/3	-4/2	-3/3